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6월)

일시	2020. 6. 18. 목. 오후 5시	장소	광주MBC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부원, 고미아, 구제길,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류한호, 박미자, 이묘숙, 이정권, 이철우, 최선희, 최영태(13명)	
	회사	송일준 사장,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조현성 보도국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이선우 기획심의부장(6명)	

■ 회의 내용

- 송일준 사장이 강부원, 고미아, 이정권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 이선우 기획심의부장 : -시청자위원 15명 정원에 13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영태 위원장께서 맡아주시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새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되신 세 분 인사 말씀을 듣겠다.
- 강부원 위원 : -만나 뵙게 돼 영광이다. 배워가는 계기로 삼고 열심히 뉘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되겠다.
- 고미아 위원 : -처음 뵙겠다.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겠다.
- 이정권 위원 : -반갑다. 시청자위원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
- 최영태 위원장 : -MBC가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속도는 높아져가고 있다. 이번 세 분의 합류로 더욱 힘이 보태질 것 같다.
- 송일준 사장 : -한 달 만에 위원님 뵙게 돼 반갑다. 세 분의 새 위원님들 환영한다. 만나는 분마다 광주MBC 어렵다고 얘기해서 송구하지만 좋은 방송이란 게 재정적 지원이 튼튼해야 한다. 제작비를 투자해야 콘텐츠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지역사회분들을 보면 늘 광주MBC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포인트는 좋은 방송 할 테니 말이라도 힘이 돼달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지난 5월에 5.18 전후해 광주MBC가 전국의 어느 방송사보다 힘을 쏟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송했다. 지날 달 위원들도 칭찬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절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6월은 그런 콘텐츠나 프로그램 면에서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다. 그럼에도 기본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은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생산을 맡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사업단에서는 6월 1일 자로 디지털 네이티브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신입사원을 한 명 뽑았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 분야만큼은 반드시 새 사람을 뽑아야겠다 해서 새 피를 수혈했다. 앞으로 디지털콘텐츠 부분에서 좋은 기대를 하고 있다. 세 위원님 다시 한번 환영한다.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주요 업무보고 하는 시간을 갖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5.18 4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녹두서점의 오월>이 총 20부작인데 6월 5일 잘 마무리됐다. 나주시 대상으로 <핑크피쉬> 성과 발표회를 가졌고 현재 시즌 1, 2 전국 방송을 모두 마치고 시즌 2가 토요일 아침 6시에 재

방송 중이다. 영어 버전을 만들어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송출하려고 작업 중이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서구청, 광주MBC 공동으로 양동시장에 <핑크피쉬>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작업 중이다. <오매 전라도>에서 오메나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개발된 캐릭터가 <오매 전라도>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본사 개편이 6월 29일 자인데 평일 <뉴스데스크>가 8시로 이동하고 일일 드라마가 저녁 시간대로 이동하고 토요일 오후 5시대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마>, 토요일 오후 10시대 <트롯명가 최애엔테인먼트>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로컬프로그램 미세한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향후 <문화콘서트 난장>이 6월 25일 녹화예정이고 6월 27일에는 <힘내라 우수중소기업 농특산물 큰 시장>이 있고 기획 특집 촬영을 시작한다.

- 조현성 보도국장 : -이달 초에 광주 시 산업단지를 비롯해 4개 산업단지가 사상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투자 유치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6월을 시작했다. 백운고가도로 철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복 분양 사건, 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분양가 논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뉴스 보도를 했고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뉴스를 주로 보도했다. 지난 16일에 광주시의회의 시정 질의를 오전 오후 두 시간씩 생중계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연중 기획 <내 인생의 오일팔>은 6월 초까지 문재인 대통령 편과 노무현 대통령 편 방송이 끝났고 후속 편으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일본에 학술지를 통해 광주를 알렸던 지명관 교수 편이 방송 예정이다. MBC 부분 개편에 따라서 29일부터 <뉴스데스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8시에 편성이 되고 기존 80분에서 95분 확대된다. 1부는 당일 핵심 뉴스로 가고 2부는 심층 기획물 위주로 채워질 예정이다. 로컬 뉴스는 1부 후반부에 편성 예정이고 시간대는 미정이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21대 국회 개원하고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관련해 보유한 지상파 콘텐츠를 바탕으로 재활용 콘텐츠 제작이 있었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 제작 지원받은 디지털 오리지널 '숏폼' 10분짜리 5편 디지털 오리지널베이스로 제작하는 '한 평의 삶' 제작을 본격화했다. 저예산이지만 '귀호강 스튜디오'라고 트로트 관련 채널에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콘텐츠를 월 2회 녹화 제작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콘텐츠는 난장을 바탕으로 한 리얼뮤직 난장채널에서 과거 MC 박새별 영상 중 김광석 커버 음악이 주목을 받아서 20만 이상 조회를 했다.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과거 아카이빙 콘텐츠 전설의 타이거즈를 하고 있는데 평균 1만 이상 조회되고 있고 선동렬은 20만을 상회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하반기에 스포츠 채널을 만들어서 분리 독립할 계획이다. 7월의 주요 계획은 광주MBC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9만5천 명이 넘었는데 10만이 달성되어 실버버튼을 받게 될 거 같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TV <얼씨구당>처럼 지상파와 연계한 디지털콘텐츠를 기획해서 상호교류 형태로 방송 편성을 기획 중이다. 디지털콘텐츠 PD를 선발해서 8월까지 수습 교육하고 9월부터 본격 업무 예정이다.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회사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여수 화양지구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 여수, 경남MBC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고, 일성그룹과 연계해서 수익모델을 창출코자 추진하고 있다. 현 비아송신소 부지하고 첨단3단지 부지가 있는데 앞으로 회사 미래를 위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첨단3단지는 오늘 자로 시 집적단지개발 연구산업복합단지로 정부에서 확정됐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회사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8회 꿈을 실은 독서 열차와 장윤정 콘서트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 김형순 위원 : -비아송신소 부지는 얼마나 되나?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9천2백 평 정도 된다.
- 송일준 사장 : -방송통신시설지구로 지정돼 있고 2중, 3중으로 규제에 묶여 있다. 장성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인데 비아송신소를 이용해서 부동산 종합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대만큼 재정적 도움을 받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니 최대한 활용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이요숙 위원 : -<뉴스데스크> 전반적 시간이 늘어날 때 광주MBC 시간도 늘어나는 건가?
- 조현성 보도국장 : -12분에서 많을 땐 15분까지도 하는데 걱정 로컬 시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12분 정도 전후가 무난한 분량이 아닌가 판단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를 해달라. 보도부문에서 김태진 위원부터 해달라.
- 김태진 위원 : -자가 격리자 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가짜 양성판정 논란이 최근에 있었다.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정보들을 신속하게 담아줘서 감사하다. 뉴스를 보면 기자들의 스탠딩이라든지 시민분들 인터뷰 시 마이크 착용 유무의 기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는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방송이란 특성상 통일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된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끼고 어떤 경우에 끼지 않는지에 명확한 기준이 느껴지지 않았다. 광주 MBC 방송 내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좀 더 시청자에 느껴질 수 있게 드러났으면 신뢰감이 높아질 거 같다. 더 나아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조금은 해이해져 가는 측면이 있다. 지역민들에게 캠페인이나 콘텐츠 내의 메시지를 통해 아직은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임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다.
- 류한호 위원 :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까지 심각하게 진행됐지만 앞으로 더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 코로나19가 세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는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중에서 사회적인 소수자에 강하게 나타나고 특히나 청년들에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학생들이 한참 꿈을 펼치고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꿈의 팽창과 성숙을 심하게 억압당하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심각하다.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 쪽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방송이라는 매체 자체가 청년 지향적인 매체이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청년끼리 공유하고 사회 구성원끼리 공유해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공통의 에너지를 개발해 낼 수 있도록 방송에서 힘을 줬으면 한다. 가령 <오매 전라도> 같은 프로그램, <김낙곤의 시사분석> 같은 프로그램에서 청년의 문제를 좀 더 본격을 다룰 수 있었으면 한다. 미래의 희망을 개척해나가는 청년의 모습을 <황동현의 시선집중> 같은 프에서 적극적으로 코너를 마련해서 오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청년들이 당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청년들끼리 좌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공유하면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방송에서 신경을 써주면 우리가 이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요숙 위원 : -6월 14일 <뉴스데스크>와 6월 15일 <뉴스투데이>의 내용이다. 제목은 “선부른 발표 가짜 뉴스로 확산”이었는데 당시 13일 두 학생의 양성판정 때문에 광주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다. “선부른 확진 발표가 불러온 파장은 컵습니다.”로 시작한 뉴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맘 카페에서 이러한 것들이 공유되면서 일어났던 내용이 보도되었고 지역사회 이런 오류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도되었다. 사실은 두 학생이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서 조퇴를 시켜 2-3일 동안 집에 있다가 인근에 있는 사설 기관에서 받은 두 학생의 양성판정에 광주시는 민간 기관의 검사 결과에 의구심을 표했고 해당 기관은 과거 오진 사례가 있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시는 정확한 결과를 위해 12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시는 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도 검체를 채취해 조사토록 했는데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1차 민간기관에서 채취했던 검체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나오면서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결국 질본은 첫 양성판정 이후 4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것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원인과 처리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가짜 양성’ 판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과정의 결과를 공개하는 상황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의구심이 들었다. 채취와 검사 결과의 혼선이 마치 광주시의 잘못된 양 뉴스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뉴스란 사실확인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 이를테면 교육 현장에서 최초의 문제점과 검체 과정의 안정성과 검사의 신빙성 등이 더 중요한 요점이었었는데 문제의 중요 포인트를 놓친 뉴스가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 같다. “공정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의 MBC 방송 모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였다. 보도를 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됐으면 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다른 언론들도 타이틀을 비슷하게 잡아서 했다.
- 이철우 위원 : -MBC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본다. 그리고 광주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환경 관계에 대해 한 달 동안 살펴보니 4건의 보도가 있었다. 다른 뉴스에 비해 4건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저는 지역의 위대함, 정체성, 경쟁력은 돈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성이나 환경, 생태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5.18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은 혼란 와중에 범죄가 없고 도덕이 살아있고 규범이 지켜졌던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가치 평가를 받지 않았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가. 즉 5.18의 출구는 무얼까에 대해서 MBC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4건 보도 중 하나는 1년 전부터 보도되었던 재활용 쓰레기를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해서 모아놨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그냥 물어버렸다. 처리 과정에 도덕성이 전부 상실된 사태인데 이걸 보도한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누구 잘못인지 따졌겠지만 그보다 좀 더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MBC가 주관이 돼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앞서 나가는 보도와 행동이 일치되는 정책 실현이 되었으면 한다. 실제로 환경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것에 대한 보도내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보도 내용에 비해 적다. 물론 뉴스의 가치는 항상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아주 끔찍한 거 등이 뉴스에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 MBC가 긍정면에서 보도와 함께 실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뉴스에 고정 칼럼을 만들 수 없겠지만 꾸준하게 정책적인 면을 매일 조금씩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청년노동자 사고에 대해 7회에 걸쳐 집중적인 보도를 했다. 반복된 사고라는 점에서 그 원인, 대책 등까지 꼼꼼하게 살핀 것은 좋은 모습이었다. 백운고 가도로 철거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고 여러 날에 걸쳐 보도한 것도 좋았다. 6월 1일 홈페이지 뉴스 스페셜에서 제2순환도로 이용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통행료 인하, 내비게이션 보완 등 대안 제시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것이 좋았다. 6월 4일날이 철거작업이 시작된 날인데 기사 타이틀은 '교통대란 없었다'였다. 그런데 같은 뉴스 시간에 우회도로와 관련해서는 많이 막혔다는 운전자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이 경우 주 타이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계속해서 백운고가 문제는 뉴스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이철우 위원이 뉴스에 부정적인 보도가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 MBC 홈페이지에 좋은 뉴스 소개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우울한 이야기가 많다. 6월에는 좋은 뉴스 소개가 없었다. 좀 더 발굴해주면 지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거 같다. 프로그램 간 역할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TV의 <김낙곤의 시사본색>, 라디오의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지역에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완적인 프로그램인 <오매 전라도> 등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주요 관심사를 누락 없이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
- 김태진 위원 : -<김낙곤의 시사본색> 6월 14일 편에 매끄럽지 못한 편집 부분이 있었다. 프로그램 초반에 패널 이야기 중에 자료화면이 나오는 장면에서 자료화면 나오는 순간의 아마 자료화면 음량이 잘못된 거 같은데 패널의 이야기 소리와 중첩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자료화면의 소리는 이내 잦아들었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매끄러울 것 같다. 또 송영길 의원의 멘트에서 인요한 교수의 멘트로 넘어가는 순간이나, 패널이나 사회자, 자료화면으로 화면전환이 되는 순간 순간에 좀 부자연스러운 곳들이 있었다. 특히 30분경에 인요한 교수의 멘트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회자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화면 전환이 부자연스러운 곳들이 이번 편에는 많았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면 매끄럽게 보이지 않을까 싶다.
- 이묘숙 위원 : -<김낙곤의 시사본색> 세트 배경 화면이 굉장히 밝아졌다. 코로나로 우울한데 밝은 톤이어서 화면상 세련됨이 느껴져서 기분 좋았고 제가 집중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부자연스러웠던 것도 화면이 주는 느낌이 부드럽다 보니 조금 받아들이기 수월해졌고 6.15공동선언 20주년과 한반도 평화 중대기라는 타이틀이 다 보니 섭외했던 패널들이 각각 층위가 달라 전국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이해하는 데 시청자로서 좋았던 것 같다. 서울 MBC에서 진행을 했어도 호응도가 있었겠다. 중립적이면서도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시청을 할 수 있었다. 패널의 섭외에 있어서나 세트의 완성도가 방송프로그램의 집중도

와 이해도를 높여주지 않나 생각이 든다.

- 최영태 위원장 : -지난 4주 동안 <김낙곤의 시사본색> 두 차례 방송된 것 같다. 지난달 시청자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 일요일까지 하면 3회 연속 중단되었는데 흥피에 게재가 안 된 건지 실제로 중단된 건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 김요수 위원 : -6월 11일 <오매 전라도> 코로나19 시대 고위험군 업체 출입에 필요한 정보인 전자출입명부인 QR코드 만드는 법을 현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준 것은 아주 좋았다. 광주에 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과 앞으로 생길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광주시 공직자가 설명하는 것이 신뢰를 주었다. 우리가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제때 알려주고 광주경제 변화를 미리 짚어주는 대목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고기 가공공장에서 고기 손질에서 배달까지 강소사원 해볼랑가 꼭지에서 따로 고기 유통을 설명해주는 부분도 좋았다. 6월 라디오 정오 뉴스에서 서울 뉴스 중에 갑자기 광주 아나운서 연습 멘트가 노출이 있었다.
- 이요숙 위원 : -<황동현의 시선집중> 6월 12일 방송 중 2부 인터뷰 관련인데 아파트에 가장 발생하는 민원과 이웃 간 분쟁인 소음 문제를 민간단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방송의 취지는 건축물이 완료된 이후에 층간 소음을 검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층간 소음의 가장 주원인을 아이들의 발소리라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방송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섭외했던 패널은 계속 층간소음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아이들 소음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만 하다가 결국 끝나버렸다. 기본적인 생활 소음의 규정이 왜 아이들 발소리만 가지고 해서 안 된다는 말도 없이 아이들의 발소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했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 대처나 소음방지의 문제 등은 언급이 없이 계속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로만 진행해서 답답하고 요점 없는 내용 반복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전문가나 관련자를 섭외할 때 질문지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서 방송이 돼야 청취자들에게 그 문제점을 제시했던 방송의 의도나 해결책을 말해주는 전문가의 논리가 서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켰던 부분은 있었지만 문제점과 해결법이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패널에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한다.
- 구제길 위원 : -광주 동구의 한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기에 관한 뉴스였는데 동구에 거주하고 재개발 지역이 많은 만큼 관심이 컸다. 아파트 한 집당 3, 4명씩 중복 분양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조합 사무실에서 분양업무가 이뤄졌는데 조합이 지정한 통장이 아닌 업무 대행자 개인 통장으로 분양 대금이 입금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합 측은 업무 대행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피해자를 외면한 것이어서 무책임하다고 여겨졌다. 이런 중복 분양 피해사례는 예전에도 지역에서 간간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면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무엇보다 예방이 선결 조건이라고 한다. 광주에는 50개가 넘는 주택 재개발 조합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구도심을 불리는 동구 지역에 많이 있는데 낙후된 환경에서 살다가 한푼 두푼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해보자는 서민들의 바람이 속절없이 무너져 고통과 아우성이 크다. 이들의 소박한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과 함께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후속 보도 기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터전 상실 등 무분별한 주택 재개발의 그늘도 이번 기회에 함께 조명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최선희 위원 : -특집 <오월행>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핑크피쉬>, 과학특집 등도 걸작들인데 이번 <오월행> 역시 역사적 산물이 담기 다큐멘터리 가치가 아주 최상급이었다. 잘 보존된 자료가 편집되어 생생했고 지역적 안배가 로컬이 아닌 전국적으로 고른 안배를 했다. 김의성 배우의 광주 주변의 증언과 표창원 전 국회의원의 안병하 치안감의 희생을 비롯한 부산의 증언, 심용환 역사학자의 마산을 비롯한 역사적 증빙을 생동감 있게 자료들을 소개해 값진 다큐멘터리였다. 광주에서만이 아닌 전국 방송을 건의한다. 영상의 가치에 리얼한 증언이 부마항쟁부터 서울을 비롯한 광주민주항쟁까지 모두 최상의 가치로 제대로 제작된 특집물이었다. 다큐를 통해 전국민이 5.18 가치를 느끼게 하고 교육적 활용 등 제작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활용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심층 분석을 통한 5.18 다큐 제작을 기대한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세트가 바뀌어서 흐뭇했다. 급하게 만들었는지 경첩, 철물들이 보아서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시각적 안정감을 찾게 돼서 좋았다.

- 박미자 위원 :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시정 질문을 보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방송이 흥미나 자극적인 관심 위주의 편성보다 시청자들이 혹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제시와 필요한 주제의 편성도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정 질문 특집방송은 그에 따른 적절하고도 충신했던 특집방송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뽑은 시장과 시, 구의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행정을 펼치고 감시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일반 시민은 그럴 만한 기회가 많지 않은데 방송을 통해 시정 질문을 보면서 막연하게 행정에게 믿고 맡겨보는 것보단 내가 요구하고 질의해야만 삶이 바뀌는 정책들이 나오겠다고 느꼈다. 수화통역이나 현장에 제시된 영상자료 등 세심한 공유 또한 돋보였으며, 현장의 분위기를 화면으로도 충분히 느껴지는 생동감이 있었다. 매회 특집방송의 주제들을 보면 1월부터 신년특집이나 인공지능 비전 선포식, 코로나19 극복, 국회의원 토론회, 당선자 총회, 5.18 특별기획, 시의회 시정 질문까지 시의적절한 주제로 특집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시청률보다 방송의 역할에 충실한 광주MBC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씨구당>은 친숙한 이웃집 아짐과 아재 같은 두 분의 진행자가 초대손님과 나누는 토크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다. 20분 남짓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자막 해설과 분위기 살리는 추임새 등으로 국악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는 충분했다. 백금렬, 지정남 두 분은 <얼씨구학당>으로 오랜 시간 광주MBC와 함께 해서 그런지 앉아서 나누는 토크쇼를 보면서 예전 두 분의 모습을 생각하니 조금 답답하고 위축된 느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입담으로 풀어가는 묘미가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국악에 한정하지 않고 게스트의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초대손님에 대한 다양한 부분의 이야깃거리로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한가지 지정남 님이나 여자 게스트들의 메이크업을 한 피부톤과 백금렬 님의 노메이크업의 피부톤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차이가 많이 나서 세련되지 못한 연출로 비쳐진다. 본인이 거부하는지는 모르지만 화면만 바라보는 시청자로서 작게 느꼈지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김형순 위원 : -저는 얼마 전에 여수, 순천, 목포에 계신 분들과 자리에서 흥어 얘기가 주제가 됐다. 송일준 사장이 오셔서 제작한 <핑크피쉬> 기획물 얘기를 하는데 아

무도 모르는 것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흥어의 문화를 바꾸는 거는 광주 전남이 함께 바꾸어 가야 하고 애깃거리를 같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호남 3사가 독립 경영체제로 유지되고 있지만 좋은 내용의 좋은 작품들은 3사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하면 애깃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목포 그리고 특히 동부권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거 같다.

-오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MBC가 <내 인생의 오일팔>을 주제로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주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진실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획 보도였다.

- 최영태 위원장 :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다. 답변 바란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이요숙 위원님 지적하신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방송했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미진했다. 담당 피디도 출연자 섭외에 신중하겠다고 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느냐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물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뱅머신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꾸는데 그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다. 김형순 위원님 말씀하신 <핑크피쉬>는 전국방송을 두 번 했고, MBC에 브리윈에서도 하고, 목포, 여수 방송 부분은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조현성 보도국장 : -김태진 위원님께서 마스크 착용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자주 봐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자체적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요숙 위원님이 광주시가 큰 잘못을 한 것 마냥 뉴스가 비춰졌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한다. 취재기자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와 시청자의 간극은 있지 않나 생각한다. 1보가 떴을 때 긴장을 했고,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접하고 전달하고 뉴스를 만들 때 최종 판단해야되고 이걸 계속 하루종일 하다 보니 사실 피로도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광주시가 과잉 대응도 괜찮지 않나 제시도 했었다. 오늘 아침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뉴스에 좋은 뉴스, 밝은 뉴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고 그것은 뉴스에서는 오래된 논제 중 하나다. 그런 뉴스가 많아지고 뉴스의 연성화 부분도 나오곤 한다. 최근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피로하지 않게 하겠다. 밝은 뉴스에서 피드백이 더 많다.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다. 뉴스 진행 라디오 부분은 실수이고 편집 과정의 그런 부분은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5월 17일, 24일 날 5.18 특집 때문에 결방한 거 외에는 결방이 없었는데 홈페이지 업로드가 안 돼 있는 거 같다. 신경 쓰도록 하겠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박미자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얼씨구당>은 저희 스마트미디어사업단에서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해서 TV에 편성하는 콘텐츠인데 디지털콘텐츠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TV로 편성하다 보니 내부 제작진에서 논의 중이기도 하고 고민 중인데 조만간 조치 예정이다. 백금렬 씨가 일정 부분 거부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얼씨구당>은 디지털 퍼스트, 유튜브 오리지널콘텐츠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에서 먼저 만들어서 방송하다가 내용이 좋고 재미있으니 지상파에 역 편성할 한 크로스미디어 전략이다. 지상파 프로그램으로서 제작비가 제로다. 지상파 시장

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디지털은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력이 전부 지상파 프로그램 만드는데 매달려 있다. 그러니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그걸로 전적으로 적자 해소는 어렵지만 이런 크로스미디어 전략 시도가 필요하고 그 첫 번째 예가 스마트미디어사업단에서 만든 <얼씨구당>이다. 유튜브는 확장까지 비용을 들여 할 상황은 아니다.

- 박미자 위원 : -오히려 미디어 쪽에 있는 게 지상파로 오니까 자막이나, 지상파에 없는 부분이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보였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좋긴 하다. 그런데 시청하면 그런 차이가 보여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 송일준 사장 : -좋은 뉴스 관련해서는 어두운 뉴스만 하느냐는 것은 뉴스가 생긴 이래 역사적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문제다.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깔렸는데 그 시간을 빼고, 어떤 문제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거나 전달하는 시간을 빼고 좋은 뉴스를 심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가 있는 좋은 뉴스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고민도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건 때문에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은 KBS는 상대적으로 기자 숫자가 많다. 최근에는 목포, 여수에 있는 기자들까지 광주로 불러 심층성, 고발성, 비판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3사 채널 중에선 강하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느낌이라 기자들을 투입해 심층적으로 탐사보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보도에서 하고, 필요하면 되풀이해서 하고 또 편성제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문제의 고발력, 파급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있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했다. 광주MBC 구독자가 9만을 넘어서 10만이 되면 실버버튼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방송사 단위 프로그램 하나도 히트치면 몇십 만씩 되는데 제가 왔을 때 2만 명이던데 2년 몇 개월 만에 9만 명 대로 올라와 10만 명을 앞두고 있다. 매크로나 허수 계정을 통하면 구독자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순 없다. 광주MBC 구독자는 그야말로 진성 구독자다. 우리 프로그램이 좋거나 다큐멘터리가 좋거나 라이브가 좋거나 해서 구독을 한 거다. 속도는 늦지만 차근차근 다져서 10만 실버버튼을 앞뒀다. 지상파뿐만 아니고 디지털 쪽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디지털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있다. 지난번 스마트미디어사업단에서 한 신천지 고발은 몇십 만 명이 광주 지역사회에서 봤지 않나. 그걸 통해서 광주에 신천지 문제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이 꽤 많았다. 지상파 보도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 스마트 쪽 디지털프로그램 다 종합해서 광주MBC 영향력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유익했다. 감사드린다.
- 최영태 위원장 : -이상 6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